

책을 위한, 책에 의한, 책을 통한 '북가이드'

각종 이슈의 책들을 주제·소재별로 원작 일부 발췌, 정리
 각종 매체 서평자들의 단힌 시각 여는 역할도 기대

글 | 성일권(통일부 홍보기획팀장, 정치학박사)

광화문 근처의 직장에서 일하는 나는 1주일에 한두 차례 정도 '나 홀로' 점심 식사를 10여 분 만에 해치운다. 인근 교보문고에서 새로 출간된 책들을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다. 이 순간만큼은 콘크리트 사무실의 따분한 일상을 잠시 잊은 채 책방의 한 칸에서 마음껏 책갈피 속의 풋풋한 잉크 내음에 취해 본다. 군데군데 필자처럼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살짝 풀어 제긴 샐러리맨들이 책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정겹다.

필자의 관심분야는 원래 정치 커뮤니케이션 및 뉴미디어 이론이었지만, 얼마 전 공무원이 되고 나선 통일문제, 남북관계, 한미·한일관계, 그리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국제관계 등에 관한 책들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특히 독도문제나 행정도시 이전, 부동산 세계개혁, 6자회담 등 대형 이슈가 발생하면, 빠른 속도로 그 배경과 전망을 짚어보기 위해 서점을 찾곤 한다.

매체 서평, 적합성 여부 떠나 '야박' 하다는 느낌

하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책 더미에서 관심분야의 책들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특히 오후 1시까지 일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샐러리맨의 처지에 마음에 드는 책을 찾아 여기저기 뒤적이기란 어렵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신문과 잡지에 소개되는 서평란을 참조하게 되고, 결국 서평자의 시각이 책의 판매고와 출판시장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이다.

침체 일로에 놓인 출판계의 우울한 분위기와는 달리, 유력 언론사에서 일하는 서평 담당 기자들의 기세가 등등한 것은 이런 연유 때문인지 모른다. 하지만 책 한 권이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이들의 고생과 시간과 정성이 바쳐졌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서평자의 글 한 줄 한 줄이 적합성의 여부를 떠나서 야박스럽고 잔인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촌철살인의 논리와 재치와 균형을 갖춘 전문가들의 서평은 출판계의 발전에 큰 디딤돌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특별한 경우이다.

따끈따끈한 책 정보, 독자와 직거래할 책 필요

필자가 가끔씩 친구와 동료들의 점심 공세를 매몰차게 뒤로한 채 서점을 기웃거리는 것은 어쩌면 서평 담당자가 깎고 다듬고 덕지 덕지 분칠한 책의 '화장발'을 못미더워해서다. 들리는 말로는 아무리 좋은 책이 나와도 언론의 관심이 적으면 금세 사라지고, 아무리 형편없는 책이라도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 불티를 이룬다니, 출판인들은 '도대체 왜?' '그렇다면 어떻게?' 라는 의문에 스스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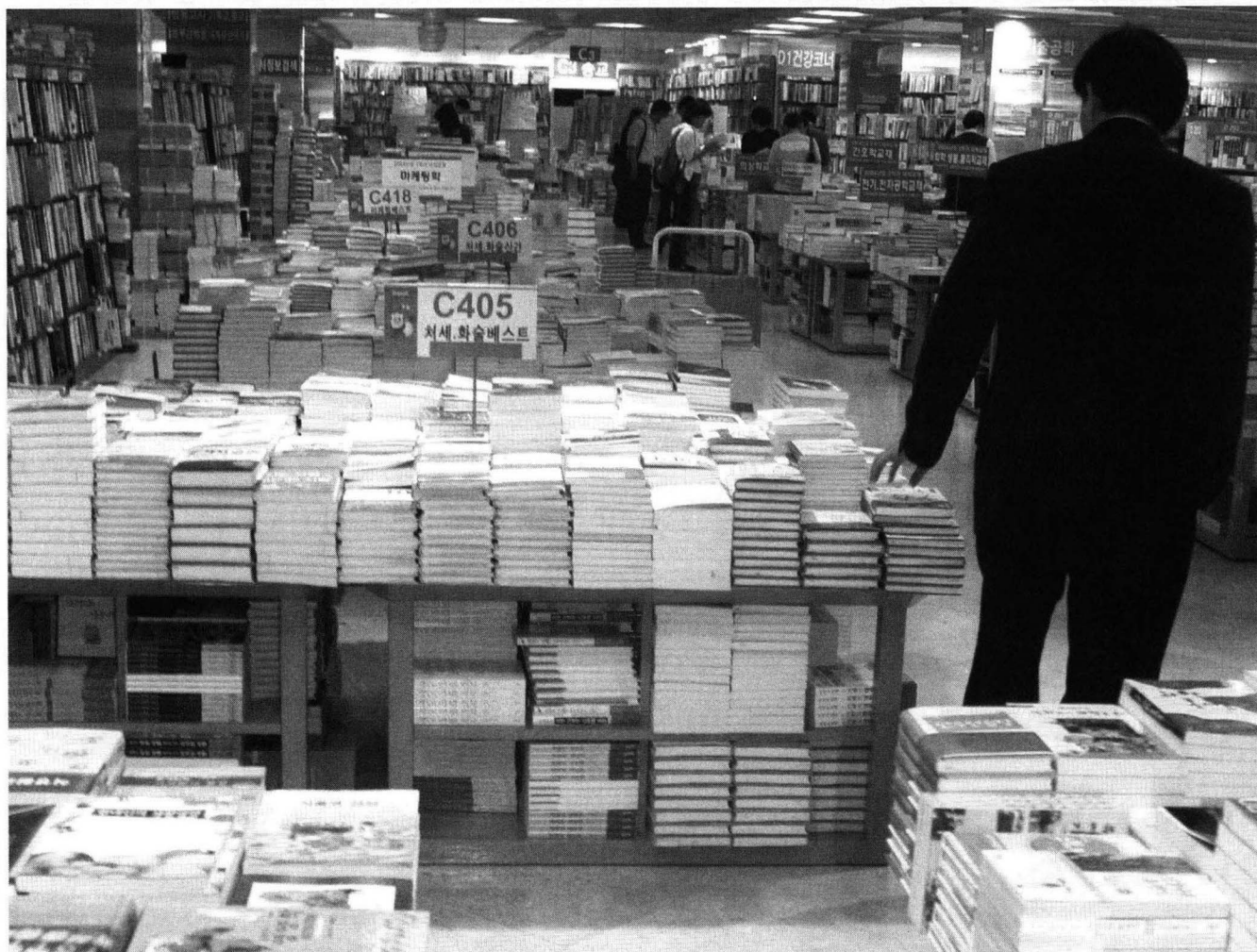
내게 만일 출판사의 CEO나 편집자의 권한이 주어진다면 독자들에게 따끈따끈한 책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책을 위한, 책에 의한, 책을 통한 책'을 만들고 싶다.

좋은 책 고를 수 있는 분야별 다이제스트 '북가이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좋은 책들에 대해 분야·주제·소재·사안별로 연구자 및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책의 1~3쪽 분량을 각각 발췌, 정리한 '북가이드'를 펴내고 싶다.

'북가이드'의 주제와 소재와 영역은 무척 다양해질 수 있다. '젊은층의 실업난', '남녀평등', '부동산 세금', '대학입학 제도', '교육개혁', '행정도시 이전', '헌법개정', '정치개혁', '노인들의 자살', '주부들의 우울증', '공직사회의 혁신', '한미관계의 변화', '독도문제', '남북교류', '북한의 변화' 등 우리의 많은 궁금증이 '북가이드'의 필요성과 의미를 말해 준다.

예컨대, 북가이드 '남북교류'에서는 남북분단의 원인과 역사, 역대 정권의 남북교류정책, 동북아 정세 속의 남북교류의 의미, 통일독일의 사례,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정치·사회·문화적 의미 등 다양한 관점을 담은 많은 저서들에서 2~3쪽 분량의 핵심 내용들을 발췌해 목차 순서별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독자들은 서평 담당자의 단힌 시각에 벗어나 원작 내용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책은 물론, 여타의 관련 책들까지



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술논문과 보고서를 써야 하는 연구소 직원이나 교수들은 망망대해의 자료를 찾아 헤매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북가이드' 통해 원하는 책 찾아 헤매는 수고 덜어

물론, '북가이드'의 편집을 위해선 학자들의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또한 학회 회원들은 물론, 교수진, 강사진, 언론인, 출판인 등 각 전문가들이 편집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 경험을 잠깐 말한다면, 파리에서 잠시 유학생생활한 적이 있는 필자는 가끔씩 프랑스의 출판사인 라도큐망타시옹 프랑세즈 La documentation française의 웹사이트(www.ladocumentationfrancaise.fr)를 방문해 관심분야의 '북가이드'를 구입하곤 한다.

최근에 나는 인터넷서점 프낙Fnac을 통해 평소의 관심분야인 '인터넷과 윤리', '자유주의', '여성의 정치참여'를 각각 주제로 한 세 권의 '북가이드'를 구입하였다. 나는 지금 프랑스어판 '북가이드'들이 맞뵈기로 소개한 원작들의 일부를 읽으면서 무슨 책을 주문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외

에 나가 공부하는 많은 유학생들이나 한국학을 연구하는 외국학자들이 우리 출판계가 내놓은 한국 관련 '북가이드'를 뒤적이며 자신들이 원하는 책자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가득이나 어려운 우리 출판계에 행여 작은 도움이나 되지 않을까 하는 애뜻한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았지만, 혹시나 필자의 생각에 공감하시는 출판인이 계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분과 차 한 잔을 나누고 싶다. ✪✪